

탄원서

사건번호 : 2014 고와 [redacted]

가해자 : 최 [redacted]

피해자 : 김 정도

제출자 : 김 정도의 부모

부: [redacted]
모: [redacted]

존경하는 재판장님!

구치소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가혹행위는 특수한 공간이라 은폐되고
고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소후에도 CCTV 확보가 어려워 증거를 보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모가 최건순에게 앞으로는 폭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때도 '상처를 보았느냐? 상처가 있느냐?' 라고 되물어 왔습니다.
이렇게 애달픈 것을 볼때 상처없이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빨리 CCTV 증거 보존을 신청을 하였기에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수를 간혀 있는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폭행과 가혹행위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일하게 다스려서 인권사각지대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가혹행위나 폭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CCTV 에서도 보이듯이 다른사람이 CCTV를 가리고 방조한 가운데
계획적으로 폭언과 함께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를 하였는데, 단순폭행이 아니고
권력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엄한 처벌을 해야할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구치소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일하게 처벌해주실것을 간혹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22일

정도 부모 올림, [redacted]